

Korea Wine Challenge

한국 와인 시장에서 오래 기억될 수입·유통사들

이번 달을 끝으로 오래 기억될 수입·유통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2020년 제16회 KWC에 참가해 대회의 의의를 높인 수입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소비자에게 기억될 수입, 유통사의 내력을 이야기한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장영수, 각 와이너리



- ① Domaine Filletteau Saumur Champigny _안시와인
- ② Ravasqueira Vinha das Romas _루나
- ③ Cramele Recas Calusari Pinot Noir _비니더스코리아
- ④ Rombauer Cameros Chardonnay _와인투유코리아



● 안시와인 _대표 최정은

그리 규모가 큰 수입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회사를 끌고 있는 대표이사 최정은은 분명 우리나라 와인 시장에서 큰 그릇이다. 2000년대 초반, 와인의 열풍이 불어 닥칠 때 프랑스에서 와인을 익힌 최대표가 당시 꽤 큰 규모의 수입상에서 마케팅 담당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회사가 위기에 처해 도산되자 2014년 자신의 회사를 세워 오늘날까지 열심히 입지를 다지고 있다.

대표의 철학은 생산지를 직접 방문해 질 좋은 와인을 들여와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 주로 프랑스의 루아르, 샴페인, 남프랑스, 쥐라, 론, 부르고뉴, 보르도의 와인을, 그리고 삐에몬테의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함께 들여오고 있다. 해마다 꾸준히 많은 양은 아니지만 KWC에 참가해 주어 고마운 뜻으로 이 글을 적는다.

● 루나 _대표 심우찬

회사의 연륜이 그리 오래지 않다. 2016년 창립되었으니까. 그러나 KWC와 연계해 이 회사를 놀라게 하는 사건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2019년 KWC에서 최종적 트로피 선발에 있어 한 집의 와이너리에서 나온 레드와 화이트가 동시에 트로피를 거머쥐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와인 생산자는 포르투갈 알렌테주 Ravasqueira 와이너리.

원래 이곳은 자연이 순수하고 주로 리스보아에서 2시간여 거리에 있어 근래 질 좋은 와인의 고장으로 이름을 얻고 있다. 한 집에서 레드와 화이트가 동시에 최상의 와인으로 등극하자 KWC의 심사원도 이 회사에 대해 놀라움을 보이기도 했다. 후일담으로 미스터 트롯 트로피를 거머쥐어 임영웅이 그의 생일에 Ravasqueira Syrah Viognier 와인을 생일 와인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 비니더스코리아 _대표 전재완

이 회사는 미국 북서부 오레곤과 워싱턴주를 중심으로 소량의 와인을 내는 생산자들과 수입,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 추세로 개성 있는 소량 생산자들은 큰 기업이나 그룹에 흡수되어 버리는 사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니더스코리아는 질 좋은 와인을 내는 작은 생산자들과 연계를 맺어 개성 있는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수입사이다.

와인 포트폴리오는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 즉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호주, 칠레 루마니아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Canned Oregon, 호주의 Rogue Vintner, 스페인의 Capel Vinos, 이탈리아의 Contri Spumanti S.P.A. 등이 있다.

● 와인투유코리아 _대표 이인균

지난해 KWC에서 놀라운 수상 와인의 수치가 나와서 다시 한번 수입사를 확인해 본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와인투유코리아였다. 출품한 미국 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상해서 그러하다. 2005년 설립된 와인투유코리아는 애초부터 미국 와인의 수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젠 포트폴리오의 영역을 넓혀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지로 확장했다.

2020년 KWC에서 수상한 몇몇 와이너리들을 보기로 살펴본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다이(Lodi)의 McManis Family Vineyards, Napa Valley의 Francli Family Vinyard, 그리고 뉴질랜드 말보르의 Georges Michel Wine Estate 등이다.